

여 성 과

<女性과 人形藝術>

인 형 예 술

견 덕 균

【衣生活】

한뼘의

망이라도 잘 다듬어 씨를 뿌리고 꽃을 가꾸는 것은 생활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는 모습이었습시다. 새를 기르고, 어항을 돌보고 오밀 조밀 무심치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만이 아닐 것입니다. 살아가되 좀 더 아름답게 살아 가려는 욕망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도 폐허를 뚫고 새로 건설하고, 그 위에 여러가지 미화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로 우리의 생활 주변을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문제는 날로 왕성해 가는 듯 합니다. 더욱이 여성들의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손수 만든 수공예품으로 생활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날로 높아감을 보고, 여러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지난 여름 여러 차례의 인형 강습을 통하여 그런 현상을 똑똑히 파악하고, 더욱 인형 예술에 대한 연구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보다 윤택하게, 보다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가. 밖에 나가 갖은 악조건과 싸우며 벌어들이는 남성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집안은 깨끗이 청소돼야 되며 아름답게 꾸며져야 하겠습시다 마는, 하나의 인형을 놓기 위해서는, 그 놓을 자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변에 먼지가 없나, 불필요한 물건이 없나……이래서 먼지는 털고 불필요한 물건은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미화에 따르는 청소 작용입니다.

강습받은 한 가정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런데 관심이 있었던가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발견했데요. 조그만 인형을 만들어 들고 들어가니까, 어디서 사서 들고 왔지, 하고 처음엔 믿어 주지 않았습시다. 그 다음, 여러번 그렇게 하니깐, 그럼 이왕이면 재료비를 좀더 들여서 큰걸 만들지——하고 이모저모 바라보면서 좋아 했어요.”라고.

이렇게

그러데 대해서 무관심한 듯 하던 바깥양반의 소원을 알아 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래 즐길 수 있는 것을 조형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필요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시다.

다른 일과 달라 짧은 시간과, 헌집 조각

을 이용해서라도 저기에 동적인 사상과 미를 나타낼 수 있는가가 인형 예술이 노력하는 바입니다. 고정된, 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다시 말하면 산(活) 언어(言語)를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하겠지요. 어려서 색지를 오려서, 또는 풀잎을 데쳐서 머리털을 만들어 수수깡으로 각지 노름하던 일도, 생각해 보면 여성은 무엇을 만들되 자기의 꿈을 조형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무소에 들어 갔던 남자 죄수가 형기를 마치고 갖고 나온 것을 보니, 그것은 타올의 실을 뽑아서 농을 꼬아 만든 조그만 인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영상(映象)이요, 꿈이요 언어였습니다.

저고리를 만들고 고름이라도 남겨서 그것으로 인형을 만드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 아닐런지요? 휴지통에 들어갈 천갑 조각이라도 이용하면 인형 팔소매도 온 바지가랭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귀여운 자녀를 가꾸는 심정, 그것이기도 합니다.

만들어서, 자기 집에 놓고 보고 즐기기도 하겠지만 서로 예와 정을 나누어야 할 경우——가령 친지의 병상으로 자기가 만든 인형을 들고 간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 것입니까. 아무리 중환의 경우라도 깨끗한 미소 한번 쬐는 때오를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부드럽고, 고운 정서를 일으키는 인형 작업은 또한 그러한 마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형 감을 손에 들고 앉았을 때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순수한 감정으로 어린애 같이 티가 없어 집니다. 내 영혼을 기우리는 곳에 인형은 그대로 웃으며 얘기하며 혹은 춤추며, 혹은 땀 포오즈로 나타내게 마련

입니다. 비록 서투른 것이라해도 그것은 그것 대로, 그 개성의 표현으로서, 특이하고 귀여운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벌레나 잡아서 찢어 발기고, 꽃을 꺾어 비트는 악습을 막고 목숨 없는 것에 목숨을 부여하는 창의성을 기르는 인간의 존엄한 면도 양성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이

뻑뻑하면 할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미화하고 창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여성이 지녀야할 태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속이 상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바느질 그릇을 곁에 놓고 무엇을 꿰맨다는 것은 니슬픔과 불안을 극복하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바늘 한개로 모든 것을 얘기하며, 참으며 살아 왔던 것입니다. 외향적으로 산으로 바다로 돌아다니며, 거리로 극장으로 쏘다니며, 잠재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바늘과 더불어 참으며 견디어 온 아름다운 여성의 생애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여성 비극의 대부분은 이 숭고한 마음과 생활태도를 상실한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꿰매고 만드는 자태야말로 우리 자신을 살찌게 하고 높히는 길이 아닐런지요!

여성이며, 바늘을 붙잡는 생활로 돌아가자고 웨치고 싶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버선은 물론 속옷까지도 사서 입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 여성이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이 됐나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응접실을 장식하는데도 모두 기성품으로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운

치없는 애깁니까. 가다가 손수 만든 수예
품들로 오밀조밀 장식해 놓은 걸 보면 그
주부의 마음씨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미
소롭고 밝은 심정이 됩니다.

근자에 와서는 딱딱한 기관에라도 인형
이 장식되어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그것이
다만 상품이 아니라, 어떤 이의 손을 거친
유래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더 값진 일이
겠읍니까?

노력처럼

우리에게 정직한 보수를
가져 오는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수단으로 방법으
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보여지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읍니다. 한땀 한땀 뿜아가는
바늘의 공로가 가장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
게 마련입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식의 부로카아적인 생활태도나 불모소득
의 허망한 꿈이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야 말로 가장 정확하고
도 고귀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사람의 생활, 무
언가 창작해 내는 사람의 머리엔 악의 씨
가 머무를 사이가 없습니다.

간혹 골목을 지나다가 놀라는 수가 많
습니다. 부녀들이 활일 없이 길에 모여 앉
아서 지나가고 지나오는 사람을 구경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일할 시
간에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길에서 다방에서 어느 곳에서나 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바삐 돌아 다녀도
못살겠다는 세상에 어떻게 놀고 살 수 있
을가 살더라도 어떻게 윤택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요컨대 아무도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사
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

고 보고 느끼고 발견할 일입니다. 눈을 똑
바로 뜨고 보면 사람마다 취미를 발견할 길
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일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며 발견 못
하는 것 뿐입니다.

외국 격언에 뜻이 있는 곳에 방법이 있
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향이 높고 아름
다운데 있다면 우리는 거기 가는 길을 발
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여성의 생활을 보다 새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참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수예
의 부면을 대단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음
을 봅니다. 주부는 물론 직업 부인이나 연
예인(演藝人)에 이르기까지 취미로서 몸에
그런 기술을 지닌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
리 생활을 좀 더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수
예하는 마음 인형만드는 마음을 가지고 찬
찬히 인생을 아름답게 엮어 나가지 않으시
렵니까.

우리만

이 지닌 풍토 속에서 특이한
것을 만들어 내는 일도 시
급한 문제로서, 나아가서는
이 가정예술을 국제 예술품으로까지 진출
시키는 일도 우리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정학회를 통해서는 이런 편
에 좀 더 관심하고 주력하므로써 조그만 힘
이 크게 뭉칠 수 있는 길도 열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두더운 계절이 가고 이제 바야
흐로 가을이 닥쳐 옵니다. 만곡이 익는 가
을을 당하여 우리도 무엇에나 걸실있는
나날을 보내야 할 것 입니다.

등(燈)을 돈우고 아름다운 인형을 만들
시다. 우리의 꿈을, 우리의 생활을, 표현
해 봐야 하겠읍니다.

선사품에 대한 생각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람들이 상호간에 情이 오고 가는 것으로 서로 친해지며,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가지로 나타낼 수 있으나 그중에 흔히 때를 따라 경사, 흥사, 인사, 방문 등으로 선물을 주고 받고 있다. 이것이 때로는 형식적으로 또 때로는 신분에 맞지 않는 허례로 되어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즉 선물의 진의를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 우리는 적은 한 가지 선물을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반가워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물건을 잘 선택하여 주는 것이 사교상 좋은 일일 것이다. 그리고 같은 물건이라도 정성껏 싸고 포장해서 정성이 서려있는 것을 보기도록 하면 좋겠다. 선물을 받은 편에서는 또 상대방의 정성을 잘 받아서 받은 자리에서 펴 보고 감사한 뜻을 표하는 것이 또 한 예의라 하겠다.

아래에 대강 때에 따라 적당한 선물을 예로 들어 보았다.

一. 출산 축하

미역, 용, 가-제, 애기 이불 애기 모기장, 애기 그네, 털실, (베비복보다는 용이나 가-제 자 더 낫다)

二. 생일 축하

연령에 따라 그 시기에 적

당한 손수 만든 “장난감”이나 학용품(크레용, 색연필등).

가정에서 흔히 구하기 어렵고 기뻐할 것을 1년에 한번 되는 생일이나 언제까지나 기억에 남을만한 물건.

三. 결혼축하

금실 좋게 사랑의 보금자리 를 상징하는 물건들.

兩가에 성이 섞여진 티스폰 호-쿠, 책상보, 식탁보등.

전기스탠드, 부부반상기, 大小냄비 한벌, 大小불- 한벌, 大小김치항아리 양념그릇 한벌, 大小주전자 한벌, 사진첩 화병.

四. 방 문

춘하추동 계절에 따라 그 시기의 감정을 담은 물건들을 선택한다. 생화를 몇 송이 들고 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삼의 시달림으로 위로해 주는 좋은 선물이다.

1. 봄...꽃씨, 은실화초, 개란, 보재기(뱃개)

2. 여름...무더운 계절이라 시원한 것을 택하며 納涼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채, 비누, 타올, 쥬스 미수가루, 香水, 영제, 수박, 참외.

3. 가을...秋收의 넓은 들을 상상할 수 있게

밤, 깨, 송이, 마늘, 고초 실백, 갑사, 숙고사, 옷감 秋夕이나 설에는 거리마다 술병이 쌓이고 사과 상자가 쌓

이는데 좀더 요긴하고 기뻐할 선물을 생각해야 하겠다.

4. 겨울...화로 걸을 연상하는

커-피, 밀크, 紅茶등 찻갑 內衣, 털실, 메루치, 폴드 크림, 떡

五. 문 병

꽃(흔히 꽃을 많이 하나 실베되지 않는 한 “꽃대”라고 써서 現金도 요긴할 것이다)

그림.

六. 크리스마스

색초, 털실로 짠(주머니, 장난감, 造花, 室內장식품)

七. 조 상

향료, 향, 초, 과일, 광목.

八. 이 사

석냥, 초, 종이등.

(박 남 길)